

# 변증법적 유물론 문제 해설

ml2020

1.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루는 물질의 운동은 역학적 운동을 기초로 하며 우연적 요소보다는 비우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역학적 운동 뿐 아니라 모든 운동의 성질을 반영한다. 또한 물질의 운동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 우연과 필연의 통일임이 밝혀졌다.

2.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루는 물질의 운동은 물질과 반물질간의 개념적 대립을 해결하지 못했다. (반물질->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전자 운동)

변증법적 유물론은 양자역학의 발견 성과를 흡수한다. 허나, 전자를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는 반대한다. 물질의 대상은 주관자와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물이다.

3.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연성과 법칙성을 물질의 통일성을 통해 설명하며, 이는 결국 물질은 법칙적 운동을(만-출제오류) 한다는 견해로 수렴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연성과 법칙성을 물질의 통일성을 통해 설명하지 않는다. 물질의 통일성은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 견해인데, 이것과 우연성과 필연성의 통일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또한 물질은 법칙적 운동을 한다는 견해로 수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성과 법칙성의 통일이 물질의 운동이며, 우연속의 법칙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이다.

4.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의 운동을 다룰 때, 관찰자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말하는 물질은 주관자와 독립된 대상을 이야기한다.

5.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며, 관찰자와는 그 어떤 상관도 없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론은 유물론이다. 따라서 물질은 의식으로부터 독립한다.